

##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 호 정 · 김 순 자<sup>†</sup>  
상명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 A Study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Exaggeration Type in Modern Fashion

Ho-Jung Kim and Soon-Ja Kim<sup>†</sup>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2005. 5. 17. 접수 : 2005. 11. 12. 채택)

#### Abstract

Exaggeration is to express an object or a situation in an excessive way. As the desire for aesthetic expression grows greater today, we tended to focus on the exaggerative expression as a means to acquire other's attention and praise. Also people more actively express their own intention or opinion in an exaggerated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of modern fashion via exaggerative expression, one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its meaning. To do so, the exaggerative features of modern fashion have been analyzed, and the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those have been examined throug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aesthetic sense. The formative form in the exaggerative expression shown in the modern fashion was classified into a body priority type emphasizing woman's body contour, a body disregarded type shown oversized silhouette regardless of body contour and a body distorted type expressing free and diverse form in various shapes of asymmetry and imbalance. The symbolic meanings of those include the changing of the body consciousness and the notions of femininity, and the desire for formative and playable expression. The exaggeration of the costume in history meant aesthetic value of the woman's body in the society led by men. However, the exaggerative expression shown in the modern fashion is a method to express more actively, as compared with the costume in the past.

*Key words: exaggeration type (과장형), formative characteristic(조형적 특성), symbolic meaning(상징적 의미).*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복식은 그 시대의 정치·사회·문화·예술 등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특유의 형태를 창출해 내고 있다. 특히 사회 구조적인 제약이 많이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복식의 특성은 무엇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미의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sup>1)</sup> 다양한 복식 문화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미의식과의 관련성을 제시할 수 있다.

<sup>†</sup> 교신저자 E-mail : sjkim@smu.ac.kr

1) 김윤희,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 4.

복식에 나타난 미의식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복이란 물질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며 그 시대 사회 속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조형적 형태에 의해 인간의 내면적인 인간 정신, 나아가 시대 정신을 나타내는 미이다. 따라서 복식은 신체를 매개로 표현되거나 사회 문화 현상의 변화에 따라 신체 형태의 특성과 관계없이 새롭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과장이란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하는 것으로 미적 표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타인의 주목과 찬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과장적 표현에 집중하게 되며 또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의 조형적 특성의 하나인 과장적 표현의 특성과 의미를 통해 복식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밝히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현대패션에서의 과장적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미의식을 통해 그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련 서적과 선행 논문 및 학위 논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 과장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문학, 미술, 건축, 복식 등에 관한 분원 자료를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에 대한 고찰을 위해 복식사, 패션 현상에 대한 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형 복식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패션 관련 서적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발행된 패션 잡지의 사진 자료와 인터넷의 패션 관련 사이트를 통한 사진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내용은 첫째, 20세기의 시대 정신과 미의식을 살펴보고 둘째, 시대별 과장형 복식을 분석하여 조형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과장형 복식과 시대 정신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과정

으로 전개하였다.

## 3. 용어의 정의 및 개념

과장(誇張)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조형예술에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신체의 변형을 활용하는데, 조형 예술에서의 신체 구조의 변형은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신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형태의 과장은 신체의 형상을 과격적으로 깨뜨리지 않으면서 개성 있는 변화를 피할 수 있으며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복식에서의 과장은 대체로 실루엣의 과장을 의미하는데, 즉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신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복을 말한다.<sup>2-5)</sup> 또한 과장형 복식은 인위적인 실루엣을 만들기 위하여 신체를 재구성하고 은폐함으로써 이상적이고 고전적인 비율과 균형을 파괴, 왜곡하여 과장된 부분에 강조의 효과를 얻게 됨과 과도한 장식적 디테일과 트리밍의 사용으로 인하여 착용하기에 매우 화려하고 불편한 요소 등을 포함해서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신체의 형태보다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장·확대되어 강조되는 것과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강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표현한 것을 모두 포함하였다.

현대 패션은 여성복에서 코르셋이 제거되어 패션의 새로운 개념이 성립된 1910년경부터로 보았다.

## II. 20세기의 시대 정신과 미의식

20세기를 대변하는 시대 정신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 시대의 미의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의식은 복식에 반영되어 조형적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20세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시대 정신을 고찰하고

2) 김경은, “복식에 나타난 확대와 과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96), p. 11.

3) 김미현,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2), p. 12.

4) 김정진, “복식사에 나타난 인체의 과장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9.

5) 박선희, “19C 근대 여성복식 나타난 과장적 표현,”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1), p. 10.

이러한 시대 정신의 배경이 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살펴 보았으며, 시대 정신과 사회문화적 현상에 따른 미의식을 고찰하였다.

### 1. 20세기 전반기의 시대 정신과 미의식

20세기 전반 서구 유럽의 삶과 정신 세계를 지배한 시대 정신은 모더니즘이었다. 모더니즘은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 초에 걸쳐서 예술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운동을 가리키는 말로서, 전통의 단절과 변화를 중심적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과 더불어 예술에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요인은 제 1차 세계대전이다. 인류의 문명과 가치관 그리고 도덕을 붕괴시킨 전쟁이 끝난 후의 모더니즘은 더욱 더 활기를 띠고 발전하게 되었다.

과거 모더니즘 시대 이전에는 여성의 신체를 가림으로써 내적 감정의 표출을 차단하였고 강조하고 싶은 부위를 더 가리거나 다른 형태적 특성으로 중첩시켜서 여성미를 나타내었다.<sup>6)</sup>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여성들은 르네상스 이후 착용하였던 코르셋에서 해방되었고 그 이후 의복과 신체의 관계는 단순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것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푸아레(Poiret)가 코르셋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1906년이었으나 여성들이 코르셋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은 그로부터 10년 정도 뒤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생활이 크게 변화한 제1차 세계대전 후부터였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 후 여성들은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실용적이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복식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 여성들의 지위는 변화되었고, 노동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의복, 외모, 신체에 대한 태도에서 부분적인 자유와 평등을 얻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거부하고 표현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 시대 정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아직 전통적인 수동적 여성상과 능동적인 여성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1929년에는 경제공황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실

업자들이 흥수를 이루었고 노동운동이 확산되어 갔다. 직업 여성들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에게는 다시 여성다움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1930년대에는 전 시대의 미성숙한 여성 이미지와 달리 여성의 신체 곡선을 강조하여 좀 더 세련되고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1930년대의 이상적인 신체미는 키는 크고 어깨는 약간 넓고 허리선은 자연스러운 위치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신체의 자연스러운 가슴과 힙의 곡선이 다시 나타나 부드럽게 강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다시 필요해져자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고정 관념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넓은 어깨의 완만한 신체의 변화로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이 긍정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의 여성들은 1차 세계대전 후처럼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기보다는 가정으로 돌아갔다. 즉 사회적·가정적 가치는 다시 보수적으로 회귀하여 여성들이 주부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압박하였다.<sup>7)</sup> 이 시대는 또한 건강한 신체미가 중요한 시대였다. 즉 여성 신체에서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등 모든 부위를 동등하게 표현하였으며, 아우어글래스(hourglass) 실루엣으로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하고, 건강한 신체미를 표현하였던 시기이다.

2차 대전 후 40년대 말에는 여성의 허리 부위가 다시 부활하였다. 1950년대로 넘어가면서 꼭 맞는 허리와 몸, 엉덩이의 강조로 전통적 모래시계형의 여성 신체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었고, 점점 더 여성 신체미의 초점이 가슴으로 옮겨져서 가슴이 빈약한 여성은 과장된 인공 브래지어를 착용하였다. 가슴, 허리, 엉덩이 곡선을 강조한 풍만한 이미지를 선호하여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으로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를 강조한 여성 신체는 1900년 이전의 코르셋으로 과장됐던 신체에 가까웠다.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를 얻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 강요하고 구속하는 것은 19세기말에

6) 조말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상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30.

7)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2002), p. 224.

나타났던 여성 신체의 극심한 왜곡 이후로 처음 나타난 현상이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은 1950년대의 다른 조형 예술 분야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그 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거기에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 표현을 통해 누리고자 했던 자아 실현이 적극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삶에 대한 의욕’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950년대 여성미를 강조한 미의식은 1930년대와 같이 사회적 영향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니고 여성 자신들의 자아의 욕구 표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 20세기 후반기의 시대 정신과 미의식

1960년대 이후에는 페미니즘이 새로운 사회운동, 문화운동의 하나로 대두되었는데, 기존의 질서와 체제, 전통적 가치관과 잔리, 객관적 과학주의 등에 저항하고 대안적 이론을 탐색하였다. 초기 페미니즘은<sup>8)</sup> 계몽 사상과 자유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남녀평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남성의 부속물로 취급되어온 여성의 잃어버린 주체성을 찾고 여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 관념을 탈피하였으며, 나아가 여성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협된 사회가치나 개념을 부각시키고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를 확립하고자 하였다.<sup>9)</sup>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문화 현상으로 인간성 옹호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후기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본 부정적 여성상 대신에 여성의 고유한 특성들을 긍정적으로 강조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 신체적인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문화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모든 사회계층에 영향을 주어 여성들은 처음으로 여성적인

이상의 전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을 보게 되었다.

1970년대는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가 심했던 불황의 시기로 1973년과 1974년의 중동 전쟁과 오일 쇼크,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는 여성의 구직과 직장 내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sup>10)</sup> 여성의 사회 참여 부분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기존의 남성 위주 사회의 부정적인 여성상 대신에 긍정적인 여성상을 강조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차츰 자신감을 얻었고, 1970년대에는 여권 신장운동으로 발전하여 신체를 이상미에 맞추어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시대의 이상적인 여성은 자신감에 차고 활동적이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여성이었으나 여성 파워가 강해지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은 남성적 이미지를 보방, 도입하였다.<sup>11)</sup> 이러한 여성들의 남성 스타일의 모방은 남성적 특질을 남성과 공유하여 사회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 중심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여성만이 가지는 보성적인 힘을 역설하여 후기 페미니즘과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적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관심은 남성의 발달한 가슴과 어깨가 갖는 신체적 매력을 아름답게 받아들여 건강미를 상징하는 근육질의 신체가 새로운 미적 범주로 등장하였다.<sup>12)</sup> 1980년대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신체를 재해석하여 여성의 신체를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여성 신체의 해방을 주장하여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즘의 사고는 패션에서 선징적인 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1980년대의 여성의 힘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여성 파워 시대를 형성하였으며 평등과 신체 구속의 자유를 얻어 신체가 힘 있는 건

8) 채금석, “현대 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44호, (1999), p. 41.

9) 최해정, “20세기말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 20.

10)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Op. cit.*, p. 236.

11) 김영옥,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45.

12) 채금석, *Op. cit.*, p. 43.

강하며 관능적인 형태로 변형되어갔다. 즉, 여성을 여성 대 남성인 이원적인 시각에서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인식을 추구하였고, 과거 여성다움 자체를 열등한 여성의 상징으로 여기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여성다움 그 자체를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대등하게 재 정의해 가고 있는 것이다.<sup>13)</sup>

1990년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은 다원주의와 글로벌리즘이 주를 이루었으며, 과도한 소비 문화 속에서 신체는 욕망의 대상이 되고 수많은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아 신체의 모든 부위가 중요시되었고, 미적 이상형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육체와 물질적인 가치를 더욱 중시 여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성의 상품화 도구가 되었고 이성 중심의 모더니즘 시대에 표현할 수 없었던 서로 다른 성을 향한 욕망은 신체 노출 및 복식에 의한 신체 곡선의 강조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체미는 관능미와 중성미이다. 그러나 이상적 신체미는 가슴을 강조하는 여성적인 신체 곡선미를 강조하는 관능적 스타일을 추구하였지만 한편으로 현대 여성 신체 이미지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한 탈고정적 성 표현으로 인하여 기존의 아름다운 신체에서 벗어나 신체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거나, 한편으로는 성적인 면을 억제하는 중성적 스타일이 나타났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현재의 인류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을 공존시킴으로써 지배적 가치가 붕괴된 혼돈의 세기말을 극복하고 인간 본성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는 개방화와 변혁으로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신적 소외감은 스트레스의 탈피를 위한 자연으로의 회귀와 자아 실현의 갈망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쟁과 불황 속에서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의 갈등과 이중적 구도로 형성된 냉소적 분위기를 탈피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공존 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

립 문화적 전통만을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Ⅲ.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

현대패션의 다양한 흐름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과장형 복식이 등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과장형 복식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 1. 현대패션에 나타난 과장형 복식

##### 1) 뿌아레의 이국풍 복식

20세기 초 뿌아레는 여성 신체를 구속하는 코르셋을 없애고 몸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의상을 선보였다. 그러나 그의 디자인은 또 다른 부위를 구속하거나 과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1>과 같은 호블(hobble) 스커트는 엉덩이 쪽에 볼륨을 주고 발목 쪽을 극단적으로 좁게 하여 타원형의 실루엣을 만들었는데, 호블 스커트는 걸어 다니기 불편한 정도의 좁은 단으로 걷기 위한 안쪽의 발목 밴드는 여성 신체에 대한 또 다른 구속이었다.<sup>14)</sup> 이러한 실루엣에서 여자들의 하반신의 곡선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볼륨 있는 스커트 속에서 움직이는 두 다리의 모습과, 다리가 비치는 좁은 스커트가 에로티시즘의 극치를 이루었다.

뿌아레의 디자인중 특히 이국주의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일본풍 패션에서 과장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극동의 일본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기모노형의 드레스와 망토, 가운은 잔동이 아주 넓어 소매통과 품이 상당히 크고 땅에 끌리도록 길었는데, 칼라와 소매, 끝단 부분에 털을 달기도 하고 손에는 거대한 머프를 끼기도 착용하여 풍성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그림 2>의 팔을 펼치면 거대한 규모로 과장되는 기모노 스타일과 뒤쪽에 일자형의 긴 트레인이 달려있는 후방으로 과장된 망토는<sup>15)</sup>, 일본풍의 평면적 스타일에 영

13) 박미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See-Through 양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10.

14) Mackrell, A., *Paul Poiret*, (Bastford, 1990), p. 46.

15) Mackrell, A., *Op. cit.*, p. 36.



〈그림 1〉 호블 스커트.



〈그림 2〉 과장된 실루엣의 일분풍 드레스.



〈그림 3〉 장식 리플로 어깨를 강조한 여성적인 드레스.



〈그림 4〉 실용적인 기능복의 밀리터리 룩.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모노풍의 의상은 과장된 실루엣으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무시하고 부자연스럽고 감각적인 기하학적 과장 공간이 창출되었으며, 앞보다 뒤의 길이가 긴 비대칭 공간 조형으로 인해 부조화, 불균형의 과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20년대 후반부터는 어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데, 1930년대 넓게 과장된 어깨는 남성적 이미지라기보다 오히려 가는 허리와 작은 힘을 강조하는 데에 효과적이었으며, 이것은 이상적인 여성의 몸매로 정형화되었다.<sup>16)</sup>(그림 3) 이러한 외양은 남성적인 상징이 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여성적이고 우아한 여성미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고안되었다.

## 2) 밀리터리 룩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여성복은 딱딱한 남성복 느낌의 군복 스타일인 밀리터리 룩이 유행하였다. 〈그림 4〉처럼 넓고 각진 패드 덴 어깨, 약간 들어간 허리의 자켓, 무릎까지 오는 짧은 스커트의 테일러드 수트 스타일인 밀리터리 룩은 완전히 실용적인 기능복으로 짧은 스커트와 어깨에 패딩을 한 자켓의 허리를 벨트로 조여 준 이러한 스타일은 당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옷차림이었다.<sup>17)</sup> 밀리터리 룩은 이후에도 전쟁이 정치적 이슈

로 등장하거나 국제적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이러한 외적 영향력이 패션에 반영되어 밀리터리 패션으로 나타났다.

복고풍으로 등장한 밀리터리 패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넓은 어깨로 강조된 권위적인 남성적 이미지인데, 군복이 가지는 권위와 위엄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힘 있는 영웅상을 반영해 남성의 우월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권위적 이미지의 밀리터리 패션을 입을으로써 남성의 우월성을 표출할 수 있다고 여겨, 자신의 위치를 타인이 무시할 수 없고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당당하게 여성 자신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sup>18)</sup> 즉 여성이 남성적인 스타일의 밀리터리 패션을 착용함으로써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출하여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이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 3) 뉴 룩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는 여성스러운 뉴 룩을 발표하였는데 ‘뉴 룩’은 〈그림 5〉와 같이 둥근 어깨와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선과 넓고 화려하게 펼쳐지는 플레어 스커트로 전후의 침울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화려하고 여성적인 뉴 룩 스타일을 선택하였다. 전쟁 후 남성

16) De La Haye, A., *Fashion Source Book*, (The Wellfleet Press, 1988), p.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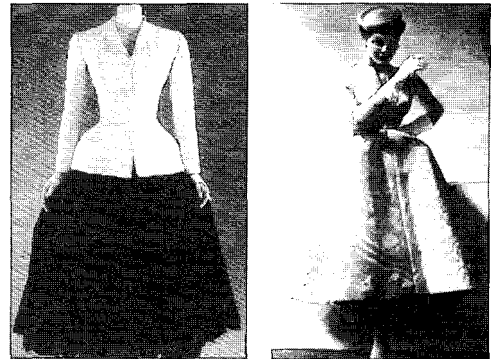
17) Bond, D., 정현숙(역), *20세기 패션*, (서울:경춘사, 2000), p. 146.

18) 채금식·이화정,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복식* 52권 1호 (2002), p. 106.

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되자 패션은 다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변화되어 갔는데, 이것은 가혹한 전지를 살아온 여성의 마음속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와 당시 여성들의 앞날에 대한 환상과 일치했기 때문이며, 또한 전쟁동안 공장에서 일을 했던 여성들이 전후에 남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 주게 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와도 부합되는 것이었다.<sup>19)</sup> 이처럼 뉴 룩은 당대의 여성상을 완전히 표현해 낸 것으로 디오르의 ‘꽃 같은 여성’이 전쟁 중의 ‘넓은 어깨’의 이미지를 대신한 것이다.<sup>20)</sup> 디오르가 “속옷이 없으면 패션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는 새로운 실루엣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속옷이 필요하였다. 가슴을 끌어올리는 특수한 브라, 허리를 가늘게 하는 ‘위스퍼즈’로 불리는 버튀대가 들어간 코르셋, 페티코트, 파니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힙과 배에 패드를 넣어 스커트를 풍성하게 만든 드레스 등을 착용하였다. 뉴 룩 이후에도 여성의 곡선미와 신체미를 강조한 실루엣은 계속해서 등장하였다.

디오르는 뉴 룩이 여성을 다시 자연스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그가 만들어낸 자연스럽게 우아한 곡선은 완전히 인위적인 것이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의복의 구성에 의해 극단적으로 곡선적인 형태를 창출해 내었는데 브라에 패드를 사용하여 가슴을 들출시키고 재킷의 힙 부분에 패드를 대어 힙의 곡선을 과장시킴으로써 가느다란 허리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그림 6〉은 디오르가 1952년 발표한 뉴 룩의 변형된 디자인으로 상의는 몸에 밀착되고, 허리는 가늘게 조였으며 스커트의 앞, 뒤, 옆에 각진 볼륨을 주어 마치 종이 상자 같은 구조적 조형성이 돋보이는 실루엣이다. 이것은 엉덩이의 과장이 특히 두드러졌던 르네상스 시대의 후방과 좌우를 포함한 전 방향으로까지의 과장을 변형해서 표현한 것으로 골반뼈가 앞으로 돌출된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복식을 통해 여성은 수동적인 장식의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그림 5〉 가는 허리와 볼륨 있는 엉덩이가 과장된 뉴 룩.      〈그림 6〉 엉덩이가 각진 엉덩이가 과장된 뉴 룩.

화려한 복식미에 의해 우아하면서도 에로틱한 느낌을 강조하게 된다.<sup>21)</sup>

#### 4) 빅 룩

1970년대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감에 따라 지위가 향상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의 자아성취도가 높아졌던 시기로 사회적 성공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고, 이것은 패션에도 반영되어 자신을 강조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인위적으로 더 넓게 패딩을 함으로써 어깨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과장은 1980년대에 극도에 달했다. 그러나 1930년대의 넓은 어깨는 가는 허리와 대조를 이루어 여성미를 강조한 것에 비해 1980년대의 어깨의 과장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파워 슈트로 직선적인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의 재킷에서 과도하게 과장된 어깨는 여성의 골격에 넓이를 부여하여 남성과 같은 권위, 재력, 위엄을 상징하고 있으며,<sup>22)</sup> 〈그림 8〉에서는 허리를 넓은 벨트로 조여 주어 활동적인 여성상으로 보이게 하였다.<sup>23)</sup> 넓은 어깨로 인해 가슴은 눈에 띄지 않아 비즈니스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는 여성의 바람에 적합했는데, 넓은 어깨 패드는 권위를 부여함과 동시에 가슴을 덮어 색슈얼리티를 제거하였다.<sup>24)</sup> 신체 실루엣을 드러내는

19)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7), p. 384.

20) 이미리, “크리스찬 디올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9.

21) 김은희,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67.

22) 박선훈,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96.

23) De La Haye, A. *Op. cit.*, p. 174.

24) 김지연, “20세기 이상미에 따른 여성 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28.

구성적인 의상에서 벗어났던 당시의 경향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입을 수 있었으며 빅 룩이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지성을 가진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적인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이 시기의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원칙은 어떠한 인위적 장식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진정한 자기를 재현하는 것과, 성적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성 신체를 억압하던 전통적 패션과는 반대로 동작을 구속하지 않는 기능적이고 편안한 옷이었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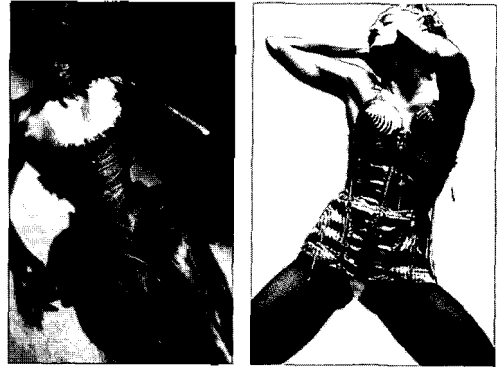
일본 디자이너들이 파리 패션계의 부각되었던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한 재패니즈 룩(Japanese look)은 동양적 복식 개념의 빅 룩으로, 신체의 선을 무시한 새로운 이상을 표출하여 자기 표현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었다. <그림 9>는 바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통이 넓은 디자인인데 이러한 넓은 어깨와 볼륨 있는 형태, 추상적으로 부풀린 형태, 정해진 형태가 없는 비구조적 라인의 커다란 규모의 의상은<sup>26)</sup> 신체에 밀착된 서양 복식과는 상반된 신체와 의복간의 공간을 활용하는 동양의 복식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 5) 바디컨셔스 룩

1980년대 후반부터 패션은 신체를 노출시켜 신체미를 강조하면서 에로틱하고 과감하게 변해갔다.

1990년대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 신체에 밀착되고 신체 각 부위의 과도한 노출에 의한 신체 곡선을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바디컨셔스 라인을 형성하였다.

바디 컨셔스 룩(body conscious look)에서의 과장형은 기본적으로 신체에 밀착된 의복을 통해 곡선적이고 풍만하며 생동감과 건강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10>처럼 신체의 가슴 부분을 과장하기 위하여 코르셋으로 허리를 조여 주어 걸으로 돌출되어 드러나 보이도록 하거나<sup>27)</sup> <그림 11>과 같이 가슴 부위를 돌출시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신체 이미지를 표현하



<그림 10> 허리를 조여 <그림 11> 원추형으로 볼출된 브라의 형태로 바디 컨셔스 룩. 가슴부위를 강조한 드레스.



<그림 7> 극단적으로 과장된 어깨의 재킷.



<그림 8> 넓은 벨트로 넓은 어깨를 과장한 수트.



<그림 9> 비구조적으로 과장된 바지의 형태.

25) 김지연, "20세기 이상미에 따른 여성 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99.

26) Irving, P., "Issey Miyake" (Libro Port Publishing Co. Ltd., 1988),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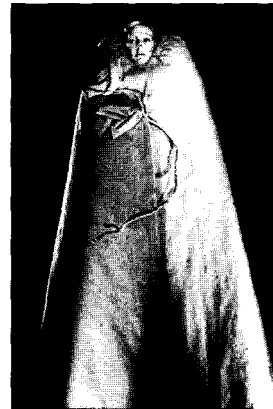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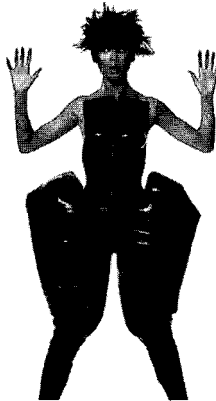
27) Harold, K., "Extreme Beauty" (Yale University Press, 2001), p. 131.



고 있다.<sup>28)</sup> 즉 여성만이 가진 성적 특성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힘을 부각시켰다. 이로써 여성성을 희생시키지 않고,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한 보다 흥미로운 여성상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여성을 섬세한 도구로 소개의 신축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와 기법의 조이는 바디 컨서스 스타일은 가학적인 표현으로 자극적인 형태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성적 매력의 변형된 표출이며 여성 신체와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새디즘적 관계로 표현한 것으로 관능미를 더욱 강조한다.<sup>29)</sup> 여성들의 직업적인 성공이 증가하여 여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로틱한 분위기를 창출하여 성적 자극의 도구로 여성의 신체를 사용하고 있다. 여성의 관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남성의 시선에 억압 당한 성적 대상화라기보다는 여성 스스로의 자신감과 힘의 표현이었다. 또한 신체 그 자체가 의사 소통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고, 신체미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신체를 의식함으로써 자기 몸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이며 자기 신체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6) 해체주의 패션



<그림 12> 불균형하게 패딩을 <그림 13> 다리에 패딩을 넣어 과장 <그림 14> 기이하게 신체를 해체시킨 표현. (Victor & Rolf, 1999 F/W).

28) Chenoune, F., "Jean Paul Gaultier," (Thames and Hudson, 1996), p. 57.  
 29) 정현, "인체 속바형 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58.  
 30) 정연자, 박병희,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 이미지," 복식 제50권 2호 (2000), p. 118.  
 31) Harold, K., *Op. cit.*, p. 112.  
 32) Irving, P., *Op. cit.*, p. 32.

해체주의 패션에서 보여주는 파격적인 복식의 형태는 권력과 우월적 지위로 여성은 도구화하고 상품화하는 남성적 취향의 패션과는 전혀 다른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다. 즉,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해체하고 전통적 인습에 도전하며 자아 정체성을 탐구하는 창의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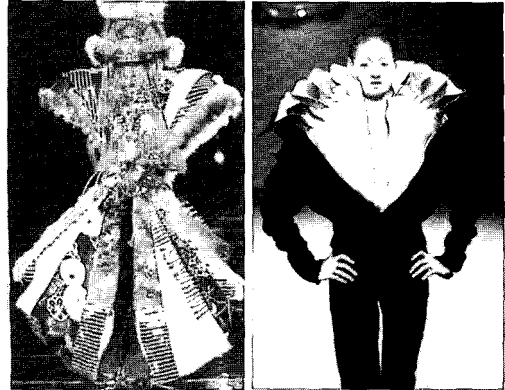
### 7) 맥시멀리즘 패션

1990년대의 이후의 패션은 1980년대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복식 현상들이 다소 세련되게 정돈되어 미니멀한 경향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낭만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새천년 사회분위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1990년대의 대표적 패션 경향인 미니멀리즘에 싫증난 새천년 패션 디자이너들은 과장된 장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맥시멀리즘<sup>33)</sup>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맥시멀리즘 스타일은 옛것을 새롭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해석하려는 복고 스타일과 다양한 민족적 특징을 보이는 에스닉 스타일로 표현되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의 혼합과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매우 가상천외하고 부조화로운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sup>34)</sup>

일본의 기모노 재킷을 재현하여 맥시멀리즘 스타일을 표현한 <그림 15>은 형태를 세분화시켜 무늬와 색상이 다른 여러 장의 소재를 패치워크하였는데, 신체 형태를 무시한 과장적 실루엣과 가부키 인형의 의상 같은 독특함과 기이함이 유희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단순한 칼라 형태에서 벗어나 형태의 반복으로 맥시멀리즘을 표현한 <그림 16>은 칼라 형태를 하나의 미적 조형물로서 인정하고 과장을 통한 보다 독특한 조형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 2. 현대 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형 복식을 시대 순으로 살펴본 결과 20세기 전반에는 신체의 기본적인 형태와 굴곡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과장하는 형태였으며, 후반에는 신체의 기본 형태를 무시하고 복식의 전



<그림 15> 무늬와 소재를 패치워크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한 기모노 재킷. (John Galliano, 03/04 F/W).  
<그림 16> 반복과 배열의 유희적 표현. (Victor & Rolf, 2003 F/W).

체적인 실루엣을 강조하거나 신체의 부분적인 형태를 독특하게 변형하여 과장한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의 과장형을 신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체 우선형 과장과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왜곡형 과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신체 우선형의 과장 복식

신체 우선형 과장은 신체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상태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두드러지게 강조한 과장의 형태를 의미하며,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뉴 룩이나 바디컨서스 룩에서 볼 수 있다. 뉴 룩은 허리와 몸통을 조이고 스커트를 부풀리는 전형적인 신체 우선형 과장복식이다. 이러한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 복식에서와 같이 코르셋의 착용이 불가피한데, 코르셋의 사용은 역사 복식에서의 신체의 억압과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표현<sup>35)</sup>과는 다른 여성 신체의 의식의 변화로 여성성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사용하였다. 바디 컨서스 룩은 신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여성 정체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개성적이고 관능적이며, 유희적으로 표현되었다.

33) 맥시멀리즘은 더 많은 것이 더 많다. 또는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예술전통으로 미니멀리즘이 축소지향적 성격이라면 미니멀리즘은 확대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김옥봉,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http://www.kcaf.or.kr/zinc/artspaper92-01/19920103.htm>)

34) 이효진, "현대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2호 (2003), p. 279.

35) 박선희, *Op. cit.*, p. 13.

## 2) 신체 무시형의 과장복식

신체 무시형 과장은 신체와 복식 사이의 공간이 많아 전체적으로 풍성하거나 특정 부위에 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과장의 형태이다. 따라서 신체의 구조적 특징이나 형태는 은폐 또는 과장되어 나타나고 신체의 형태는 무시된 채 과장된 복식의 형태만 인지된다. 이러한 과장형은 남성적인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과 빅 룩에서 볼 수 있다.

신체 무시형 과장형의 공통된 특징은 과장된 넓은 어깨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넓은 어깨와 볼륨 있는 실루엣, 추상적으로 부풀린 형태나 정해진 형태가 없는 비구축적인 형태의 큰 복식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신체를 강조하지 않는 커다란 복식 안에서 어떤 틀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 3) 신체 왜곡형의 과장 복식

왜곡은 형태나 모양을 바꾸거나 사실과 다르게 비틀어 구부러져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올바른 형태에서 변화되고 실체를 변형함으로써 시각의 향상성을 벗어나서 조형된 형태를 통해 새롭고 신선한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다. 신체 왜곡형 과장은 신체 본래 형태의 비례에 대한 무시와 신체와 분리되어 복식의 독립적인 미를 추구하는 상태의 복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신체 왜곡형의 과장은 해체주의 패션과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볼 수 있다. 신체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은 변화시키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금기시 되었던 신체적 일탈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동시에 쾌감을 느끼고자 행해지는 것이다.<sup>36)</sup> 신체의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복식의 자아 확대 개념을 넘어서 신체의 절대적 이상미에 대한 파격적 거부로 인식할 수 있다. 신체의 왜곡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난다. 이는 기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의 소외와 억압으로 인한 것으로서, 여성들은 신체 왜곡을 통해 여성이 열등하고 억압 당하는 존재가 아닌 내재된 힘과 가능성을 지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sup>37)</sup>

## 3. 현대 패션에서 과장형 복식의 상징적 의미

### 1) 여성성의 변화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과장적 표현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여성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여성미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가는 허리와 대조되는 풍만한 가슴과 힙을 강조하는 실루엣을 표현하였고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어깨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을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남성적인 어깨로 강조되고 신체의 외형을 강조하지 않는 큰 사이즈의 복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더 이상 여성적인 곡선을 감출 필요가 없었으며, 이러한 곡선은 예로틱하기보다는 생동감과 긴장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자기 확신에 찬 여성이 이상적이었으므로 복식의 형태는 몸매를 더욱 강조하면서 과감하게 변해갔다. 한편으로는 여성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왜곡된 형태로 과장하여 그 부위로 시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자신감 있게 여성의 관능성을 표현하였다. 즉, 고정적인 아름다운 여성 신체를 의상을 통해 변형, 왜곡시킴으로써 여성 신체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자유로운 확신의 행동으로 여성들의 태도가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 2) 신체에 대한 의식의 변화

의복은 신체를 감싸는 조형이며 신체를 말하는 도구이기도하다. 과거 몸을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정부 또는 지배 권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권력 기제에서 몸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최근에는 개인들의 자신들의 몸을 그들의 자아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개인적 소유물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신체가 욕망과 해방의 언어로 재발견되고 예찬되면서 몸은 구속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해방과 쾌락의 상징으로 제시되며, 곡선적이며 성숙하고 풍만한 신체를 원하였다. 또한 해체주의 개념에서 신체에 대한 해석은 신체관의 고정적인 틀을 부수는 것으로 가시적인 신체

36) 윤영, 양숙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잔혹성 이미지,” 복식 54권 1호 (2004), p. 86.

37) 윤영, 양숙희, *Op. cit.*, p. 86.

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실존하는 신체를 넘어선 더 큰 신체를 제시하여, 신체의 외형과 관련 없이 큰 사이즈로 과장된 복식으로 표현하거나 신체의 외형적 특성을 부정하고 왜곡된 형태의 복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조형적 표현

복식은 신체를 매개로 표현되나 현대 패션은 복식을 하나의 조형물로 인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즉, 복식을 인체구조에 적합하도록 구조화하지 않고 다른 예술처럼 조형적 표현을 위한 표현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sup>38)</sup> 복식 과장 또한 크기의 확대, 길이의 신장 등 인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나 도형의 형태나 건축의 구조물과 같은 형상을 통해 의복 속의 신체라는 내부 구조를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외형 형식미를 표현한 것이다.<sup>39)</sup> 그러나 현대 패션은 인체 외형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이상으로 자기 표현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패션이 단지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주체로서 변화되고 있으며 예술이 자기 표현인 것처럼 패션도 그 자체의 표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 패션에서 과장형은 정형적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시적 형태 속에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유인 자극이며 인체 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개념의 자기 표현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 4) 유희적 표현

현대 패션은 가치관의 다양화 속에서 각자의 감성에 의해 자신을 표현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패션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한다. 유희성에는 현실 도피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데, 과장적 패션에서의 유희적인 표현을 통해 현대인들은 기계적인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난 유희적 쾌락과 함께 해방과 자유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과장된 패션을 통해 보여주는 유희성이란 의복의 기능적 측면이나 과시적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감각의 표현으로서 개성 표출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질 때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현대 패션은 의상의 전체적인 외형에 있어 신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실루엣이나 복식요소들은 과장시켜 유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변형’, ‘왜곡’ 등을 통한 과장으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에 충격을 줌과 동시에 이를 유희적으로 즐기고자 함으로써 폐쇄된 미적 개념을 확장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 IV. 결 론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을 살펴본 결과 20세기 전반에는 신체의 기본적인 형태와 굴곡을 유지하면서 부분적 과장으로 표현하였으나 후반에는 신체의 기본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과장을 통한 의복변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장형 복식은 신체 우선형 과장과 신체 무시형 과장, 신체 왜곡형 과장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신체 우선형 과장은 뉴 룩과 바다 컨서스 룩에서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장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형태로 과장되었으며 신체 의식의 변화와 여성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뉴 룩은 여성스러운 관능미를 표현하였고, 바다 컨서스 룩은 자신감 있는 여성들의 주체적 의식을 표현한 것이었다.

신체 무시형 과장은 폴 푸아레의 동양풍 패션과 밀리터리 룩, 빅 룩, 해체주의 패션 그리고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볼 수 있었다. 신체 무시형 과장은 대체적으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여성 주체성의 확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 왜곡형 과장은 해체주의 패션과 맥시멀리즘 패션으로 변형과 비대칭화 등으로 과장형 복식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만의 개성 창조가 중요시됨에 따라 이상적인 신체미의 개념도 다양해지고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존하는 신체가 아닌 새로운 개념의 심체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과장적 표현의 상징적 의미는 신체 의식의 변화, 여성성의 변화, 조형적 표현과 유희적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표현으로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변화가 자

38) 성광숙, “복식확대현상의 미적 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 173.

39) 김수경,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 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 37호 (1998), p. 175.

신감의 표현으로 나타나 복식을 통해 개성적이고, 관능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복식 과장은 남성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자기 자신의 성적 특성을 복식을 통해 새롭게 표현한 것이며 보다 다양한 형태와 부피의 과장으로 어떤 틀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감각과 자기 표현에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복식 과장은 인간의 욕구가 점점 커지면서, 전에 비해 신체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한 것으로 그 시대와의 관계를 통하여 특정 시기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성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복식형태로서 신체에 내포되었던 의미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경은 (1996). “복식에 나타난 확대와 과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현 (2002).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 숙명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경 (1998). “서양복식에 표현된 여성 인체의 해석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37호.
- 김영옥 (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옥동,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http://www.kcaf.or.kr/zine/artspaper92-01/19920103.htm>
- 김윤희 (1998). “현대 한국적 복식에 나타난 인체와 복식에 대한 미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여성의 봄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선 (1996). “빅토리아 시대 유행복식과 반(反) 유행복식 운동에 나타난 여성성과 인체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진 (1999). “복식사에 나타난 인체의 과장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02). “20세기 이상미에 따른 여성 속옷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셋별 (2000). “복식에 있어서 장식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01). “19C 근대 여성복식 나타난 과장적 표현.”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광숙 (2002). “복식확대현상의 미적 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영, 양숙희 (200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잔혹성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공저 (2002).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 이미리 (2000). “크리스찬 디올 작품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 (2003). “현대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 정연자, 박명희 (2000).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 이미지.” *복식*.
- 정현 (1997). “인체 속박형 의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2001).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조말희 (1999). “현대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금석 (1999). “현대 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 *복식*.
- 채금석, 이화정 (2002). “밀리터리 패션에 나타난 성적 이미지 연구.” *복식*.
-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ond, D. (2000). 정현숙(역), *20세기 패션*. 경춘사.
- Chenoune, F. (1996). *Jean Paul Gaultier*. Thames and Hudson.
- De La Haye, A. (1988). *Fashion Source Book*. The Wellfleet Press.
- Harold, K. (2001). *Extreme Beauty*. Yale University Press.
- Irving, P. (1988). *Issey Miyake*. Libro Port Publishing Co. Ltd.
- Mackrell, A. (1990). *Paul Poiret*. Bastsford.